

車



튜닝 쉬워진다

1t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A씨. 정부의 튜닝정책 변화로 앞으로 그는 아무 때고 화물차에 포장탑을 설치·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포장탑을 올릴 때 인가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튜닝부품을 만들었지만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던 부품 사업자 B씨. 그는 정부가 만든 부품자기인증제 덕분에 신났다. 예전에는 입소문에 의존해 시장을 넓혀 갔지만 앞으로는 품질과 성능에 대한공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게 됐고, 수출까지 가능해 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튜닝시장은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던 '튜닝'이 합법의 틀에 편입되면서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된다.

우선 활성화 대책에 따라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7개 구조 중 5개, 21개 장치 중 8개는 승인을 받지 않는데 나머지도 풀어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는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례를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안되는 부분만 명

국토부 활성화 대책 발표...승인 없는 변경 사례 확대

화물차 포장탑 높이·벤 불투명 철재막 유리 변경 등

확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조변경에 관한 규정은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를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화물차 포장탑은 높이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벤형 자동차 불투명 철재막 및 유리를 투명유리로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등화장치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한 부품만 승인없이 가능하던 것을 자동차 부품으로 자기인증된 부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번호등도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민간자율 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이 아닌 튜닝부품은 업체로부터 시험결과를 받아 인증서를 발급하는 일본을 참고했다.

단 안전·환경과 영향이 있는 부품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리콜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인증제 품목을 현행 5개에서 34개로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튜닝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된 만큼 이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튜닝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튜닝을 계도하고자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칭)를 설립하며 모범튜닝업체 선정,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튜닝 작업 이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불법 튜닝의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돕고자 연구개발을 지

원하고 상용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한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분명한 기준이 없었고 튜닝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시장 규모가 작았다"면서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작년 5000억원 정도인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튜닝=자동차 소유자가 필요와 취향에 따라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것. 이번 활성화 종합대책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구조장치 변경(튜닝) 외 부작물 추가(드레스업 튜닝)까지 포함했다.

“광주은행장 조속히 선임 업무 공백 최소화해야”

광주은행 노조 성명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업무 공백최소화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민영화 달성을 위해 광주은행 출신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월 28일 후보자 공모 마감 후 한 달여 지나도록 면접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인사검증에 따른 지연이라기보다는 이순우 회장의 인사 개입에 따른 사유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광주은행 출신 CEO 선임에 방해하는 이순우 회장을 명백한 직무

유기이고, 영업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지역정서에 반하고 조직문화를 훼손하며 민영화에 역행하는 우리은행 출신의 낙하산 CEO 선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광주은행 출신의 CEO가 선임돼야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민약 우리은행 출신 등 외부 출신의 인사가 선임된다면 강력한 선임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민영화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학생 대부업 이용 ‘폭’

6월 180억원...전년보다 48% 감소

대부업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잔액은 179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341억6000만원에 비해 47.5%나 줄었다.

대부업을 이용한 대학생 대출 자체 지도와 고금리 전환 대출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원은 분석했다.

대부업을 통한 대학생의 평균 대출액은 208만원이며 연체율은 16.9%로 전년 동월의 15.3%보다 다소



상승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만기가 2~3년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 대부업체가 대학생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대학생 대출 잔액은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 해약해 생활비로

호남권 생계형 보험민원 전년보다 15% 늘어

호남권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 등에 따른 생계형 보험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전주·제주 출장소 포함)이 내놓은 '2013을 상반기 중 금융 상담 및 민원동향'에 따르면 금융민원이 모두 2493건으로 전년 동기(2808건) 대비 11.2%(315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본원의 통합콜센터(1332) 운영에 따라 상담민원은 971건으로 전년 동기(1325건)대비 26.7%(354) 감소했다. 이와 달리 서류민원은 1522건으로 전년 동기(1483건)대비 2.6%(39건)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경

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가 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요구, 보험료 갱신에 따른 할증 불만 등 생계형 보험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에 처리한 서류민원을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과 비은행권역의 민원 건수는 감소한 반면 보험권역의 민원건수는 증가했다.

은행민원은 345건으로 전년 동기(373건)대비 7.5%(28건) 감소, 비은행민원은 276건으로 전년 동기(323건)대비 14.6%(47건) 감소를 각각 기록했고, 보험민원은 895건으로 전년 동기(782건)대비 14.5%(113건)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디자인 만난 시바스 리갈

1일 서울 청담동 메종 페르노리에서 패션 디자이너 송지오(왼쪽 두번째부터)와 고태웅씨가 모델들과 함께 시바스 리갈 '모던 젤틀맨' 프로모션 론칭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소상공인에 10억 지원

전남신보와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기술형 창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지원

을 바탕으로 총200억원의 대출재원을 마련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보증대상은 이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해당되며 기술형 창업 지원체를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전남 군지역 소재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액의 일정금액을 재단의 군지역 점포에 배정했으며 5000만원까지 전액보증서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천연원목 **빈티지**가구 / 소파 / 대리석식탁

CASATO

까사토 (가족/이태리어 상표등록)

광주점 금호월드 7층 45호 ☎062)350-8333

금남가구거리점 (유동사거리 옆) ☎062)381-3388